

〈제 73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 달성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2023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부터 조사된 지방은행 부문에서 광주은행은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8년부터 6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올랐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금융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 전통시장·상인회 대상으로 '4월 현장컨설팅' 호응



광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가 17~20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대상으로 '4월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컨설팅(교육)은 상권이 형성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요청에 따라 △상담창구운영

△개별점포방문컨설팅 △집합교육 형태의 현장컨설팅을 했다.

김동규 금호월드 관리단 회장은 “주치의센터가 운영하는 현장컨설팅을 통해 상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지방체육 발전 소통 행보



광주시체육회(전갑수 체육회장)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체육회장 및 대한체육회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전갑수 회장 등 지방체육 회장 12명이 모인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제1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부회장 선임 등 보고사항 2건과 지방체육회

규정 개정 건의 등 심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체육회(전갑수 체육회장)는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및 지방체육이 상생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광주신세계, 5월 가정의 달 맞아 고객 잡기 나섰다



(주)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년 보다 1주일 앞당겨 보다 빠른 선점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닥스 패밀리기프트 특집전'을 열어 여성, 셔츠, 구두, 핸드백, 스카프, 우양산 등 런던의 감성을 품은 닥스 기프트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한 쇼핑을 위해 예년 보다 1주일 앞당겨 기프트를 제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지역 벤처기업인 만남의 장...광주전남벤처포럼 성료



최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광주·전남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대표 벤처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4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9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경주 원장)은 “오픈 AI가 지난해 공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시장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및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힘을 모아 지역기업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AI가전 네트워크 활성화 모색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AI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AI가전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AI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광주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기술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지역 가전기업에 AI 기술을 적용,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김영집 원장)는 “오는 27일에는 관련기업과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위해 가전산업에 활용 가능한 AI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지역 가전산업의 ‘내일’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UAM 타이어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콘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수상 제품은 '에어본 타이어'다. 제품은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용 시스템 타이어로, 금호타이어는 국내 UAM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기장을 이용한 UAM 시스템 타이어를 기획했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디자인 어워드'에도 수상 실적을 보이며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아(주)AutoLand광주

◆기아, '더 2024 셀토스' 출시



기아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셀토스'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더 2024 셀토스는 소형 SUV 1위인 셀토스에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4 셀토스는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형 SUV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디케이

◆김보곤 디케이 회장,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후원금 1천만원 전달



생활가전 전문기업 디케이(김보곤 회장)가 3일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에 10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회는 후원금을 지역 간 과학문화 편차 해소와 자라나는 호남지역 어린이 과학에 지식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디케이(김보곤 회장)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과학 꿈나무에 꿈과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뜻을 보태게 됐다” 며 “후원금을 과학인재 양성에 소중히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 임직원 참여 환경보호 캠페인



대유에이텍(권의경 대표이사)은 ‘노사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가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은 오는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유에이텍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ESG활동을 추가 기획 및 검토해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유에이텍(권의경 대표이사)은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노사가 함께하는 환경 보호 캠페인’ 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회사 일대를 정비하며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만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김무영 본부장)는 26일 광주광역시본부 교육장에서 광주광역시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본부는 질식·급성중독 등 건설업의 사망사고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 방법을 제공하는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김무영 본부장)는 “올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고 보건분야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가 필수적”이라며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최신의 산업보건 이슈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관리자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건설현장의 보건관리 활성화 및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AI 기반 전기방식 관제시스템·관리방법' 특허 출원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기업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지하매설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기방식 관제시스템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방식전위를 측정해 A에 의해 전기방식 부적합의 원인과 위치를 예측하는 관제시스템과 그에 관한 관리방법이다.

해양에너지(정희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한 특허를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선도적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제로 문화가 더욱 더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602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 · 강사 : 최정욱 (JM컨설팅 대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우리나라 와인에 대한 편견과 국산 와인, 한국 와인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나라 와인을 드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너리가 250개소가 있고 약 1천 개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메이저 국가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태리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꽤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와인도 국산와인, 한국와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산와인은 수입해온 포도를 경북 경산공장에서 병입해서 나오는 와인을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커피를 예로들면, 해외에서 원두를 수입해서 봉지에 담아서 팔면 국산 커피가 됩니다. 와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와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와인이란 우리나라 재료를 써서 만든 와인들을 따로 명칭 하고자 제가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많은 소믈리에들이 동의해줘서 국산와인과 한국와인을 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인은 대부분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도뿐만 아니라 복분자 와인, 오미자 와인, 사과 와인 등 다양한 과일로 제조한 와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로 와인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과, 배, 딸기 같은 과일을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일이 맛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포도만 가지고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은 당도가 떨어져서 와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 사과, 복분자, 매실, 복숭아, 배, 다양한 과일로 와인을 만드는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해외 와인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야기하면 다양한 과일로 와인을 만든다며 극찬을 하고 갑니다.

우리나라 와인을 서양 와인의 기준에 두면 안됩니다. 이태리 식탁에서 이태리 와인은 더없이 좋은 와인이고, 프랑스 식탁에서 프랑스 와인은 아주 적절합니다. 서양의 좋은 와인에 대한기준은 육류를 포함해 구운 음식과 먹기 때문에 타닌과 산도가 어느정도 있어야 어울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탁에서 서양식에서 좋은 와인이 좋은와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와인들은 고추장, 간장소스를 베이스로하는 한식, 그리고 맛을 잡아주는 찌개와 국, 김치가 있어 보조역할을 하는 와인이 많습니다.

한국와인을 알리기 위해 광명시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광명동굴 와인연구소장을 하면서 첫째 40여종의 와인으로 확대하여 소개하였고, 현재는 210종 이상의 한국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II. 광주경충 소식

함께 광명동굴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명동굴에서 5년간 19만병의 한국와인을 판매했고, 편의점 유통, 전통주 전문가들에게 한국 와인 판매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와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과일로 발효해서 만든 주류 시장은 전체 와인소비의 0.1%정도입니다. 아직 한국와인의 존재감이 낮고 접해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국와인과 한식을 즐길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와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좋은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격, 브랜드 보단 음식에 맞는 와인을 마시는 것이 와인을 우리가 와인을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경제 동향

◆ 통계청,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4.28)

- (생산) 2023년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5.1%) 및 서비스업(0.2%)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
 - ※ 전산업생산 증감율 추이(% , 전월대비) : $\Delta 0.5('22.11) \rightarrow 0.1(12) \rightarrow 0.0('23.1) \rightarrow 0.7(2) \rightarrow 1.6(3)$
-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Delta 31.5\%$)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35.1%), 자동차(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5.1%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Delta 2.0\%$)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1.8%), 부동산(3.1%)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3년 3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대비 3.3%p 상승
 -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0.6('22.11) \rightarrow 68.3(12) \rightarrow 71.3('23.1) \rightarrow 68.9(2) \rightarrow 72.2(3)$
- (소매판매) 2023년 3월 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Delta 1.1\%$) 판매가 줄었으나, 비내구재(0.7%), 내구재(0.4%)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0.4% 증가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 $\Delta 2.3('22.11) \rightarrow \Delta 0.2(12) \rightarrow \Delta 1.5('23.1) \rightarrow 5.2(2) \rightarrow 0.4(3)$
- (설비투자) 2023년 3월중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5%)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Delta 9.7\%$)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2.2% 감소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전월대비 0.6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전월대비 0.3p 하락)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5.1)

- 2023년 4월 수출은 49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했으며, 수입은 522.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 무역수지는 26.2억달러 적자 기록

Ⅲ. 노동경제동향

※ 무역수지는 2022년 3월(△0.2억달러)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최근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47.7('22.12)→ △125.2('23.1)→ △53.0(2)→ △46.3(3)→ △26.2(4)

※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 감소 전환 후 7개월 연속 감소

▶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9.7('22.12)→ △16.4('23.1)→ △7.6(2)→ △13.6(3)→ △14.2(4)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수출의 약 75% 차지) 중 선박, 자동차, 일반기계를 제외한 12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

※ 2023년 4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선박) 59.2, (자동차) 40.3, (일반기계) 8.1, (차부품) △1.6, (이차전지) △4.4, (가전) △10.2, (철강) △10.7, (섬유) △14.9, (바이오헬스) △18.3, (석유화학) △23.8, (석유제품) △27.3, (디스플레이) △29.3, (무선통신) △34.3, (반도체*) △41.0, (컴퓨터) △73.3

*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7.8%)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국가별) 對중동(30.7%), 對EU(9.9%) 수출은 증가한 반면, 對미국(△4.4%), 對중남미(△20.6%), 對아세안(△26.3%), 對중국(△26.5%) 수출은 감소

◆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5.2)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2월(3.7%) 이후 15개월 만에 3%대로 하락

▶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5.0('22.12)→ 5.2('23.1)→ 4.8(2)→ 4.2(3)→ 3.7(4)

※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월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16.4% 하락하여 2020년 5월(△18.7%)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기타 상품·서비스(8.6%), 음식·숙박(7.6%), 의류 및 신발(6.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6.1%) 등 11개 부문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 교통(△6.0%)은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23.7%)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6.1%)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2023년 3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현대경제연구원, 「對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발표 (4.28)

- 현대경제연구원은 對 중국 교역구조 변화를 기술수준별, 품목별로 살펴보고 한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을 분석한 「對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

① 기술 수준별

- 한국의 對中 교역은 고위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 2020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9.1%, 43.6%로 1990년 대비 수출은 약 24%p, 수입은 약 15%p 상승

② 상위 5대 수출입 상품별

- 한국의 對中 5대 수출 상품 구성 변화와 함께 對中 수출 비중도 상승했으나, 특정 상품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 2020년 對中 5대 수출 상품은 1990년에 비해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유기화학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이 바뀌었으며, 이들이 전체 對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5%에서 2020년 56.7%로 소폭 상승
 - ※ 對中 수출 1위 상품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이 1990년 20.3%에서 2020년 33.6%로 상승
- 한국의 對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對中 수입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한·중 간 교역경쟁력 비교 〉

① 기술 수준별

- 기술 수준별 분석 결과 한국의 對中 교역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교역경쟁력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산출하여 분석. RCA가 1을 상회하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② 상위 3대 수출 상품별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및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 중국 교역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中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으로 2000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경우 RCA가 1990년 3.23에서 2020년 1.49로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며 중국에 역전됨.

2. 노사 동향

◆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중심의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

- 정부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확보, 고용세습 근절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
 - 대통령은 5. 1 메시지를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 1 노동개혁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 감독 등을 통해 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
- 한편, 고용부는 매년 노사 상생 및 협력 증진 명목으로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노조 재정 관련 서류비치·보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한국노총 제한
 - ※ 고용부는 지난 3. 10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법적의무 미준수(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미제출)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결정
 - ※ 다만, 고용부는 5월 중순 이후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바, 금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법적 의무를 다할 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
- 고용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번 심사를 통해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미준수한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5. 2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부의 결정은 국고 보조금을 이용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

◆ 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지원 활동 본격화

Ⅲ. 노동경제동향

- 여당은 5. 2「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임이자 의원(위원장), 박대수 의원(부위원장), 김형동 의원(간사), 한무경 의원, 이주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9명과 자문위원으로 구성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노조의 고용세습 근절 등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여당과 고용부는 5. 3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습체불 근절 대책*」발표

* 상습체불 근절대책 주요 내용 : ①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5월, 103개소), ②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근로감독 이후 임금체불 지속 발생시 재감독 착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둘러싼 노사갈등 지속

- 최저임금위원회는 5. 2 개최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3. 31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접수하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구성

* 부위원장: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운영위원: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경총은 이 날 회의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 강조

Ⅲ. 노동경제동향

[참고]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주요 발언

구분	주요 발언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1% 중반대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고,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한계 상황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유의미한 결정을 해본적이 없음. 올해는 정부 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여러 연구 검토가 있었으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함.

○ 반면, 노동계는 ▲최저시급 12,000원(전년 대비 24.7% 인상),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저임금 논의 난항 예상

- 노동계는 지난 4. 26 양 노총을 중심으로「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를 구성한 가운데 양 노총은 5. 3 공동 성명을 통해 차기 전원회의(5. 25 개최 예정)부터 회의 내용 공개 요구

○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고율의 임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되는 양상

- 양 노총 산하 주요 산별연맹(노조)은 고율의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교섭 요구사항 확정

[참고] 양 노총 주요 산별노조(연맹) 2023년 교섭 관련 주요 요구사항

구분	주요 요구사항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연맹] 9.1% 인상(정액급여 348,483원) [금속노련] 기본급 대비 9.67% 인상 [섬유·유통노련] 기본급 대비 9.3% 인상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노조]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1,000원과 월 통상 임금 2,486,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② 지부 집단교섭(월 기본급 184,900원 정액 인상) [보건의료노조]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

Ⅲ. 노동경제동향

○ 또한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들도 고용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노사갈등 우려

※ 삼성전자 노조는 5. 4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투쟁일정 등 발표(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 5. 2)

-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6% 이상의 임금 인상 요구를 고수함에 따라 교섭 결렬

- HD현대중공업 노사가 5. 16 2023년 임단협 관련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기본급 18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 등을 요구